

성 판델레이몬 자선 치료자 (2020. 7. 26)

성 판델레이몬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인입니다. 병자들을 기적으로 치료해주고 불치병을 치유한 분입니다. 성인은 소아시아의 비씨니아 지역 니코디미아에서 태어났습니다(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 이 도시는 디오클리티아노스 로마 황제가 중심 도시로 세웠고 이곳을 거점으로 동쪽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황제의 엄청난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끔찍한 고문에 내몰렸습니다. 12월 28일은 니코디미아에서 하루 만에 20,000여 명이 화형으로 순교한 날이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판델레이몬(어릴적 이름은 판토레온. 나중에 '수많은 자선'이라는 의미로 판델레이몬 성인이라고 불림) 성인의 어머니 에브블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혼을 소유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을 통해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교회는 3월 30일을 이분의 축일로 지냅니다.

성인의 아버지 이름은 에브스토르기오스이며 고위 공직자였고, 이교도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의학에 재능을 보이자 그 지역에서 가장 저명한 의사이자 황실의 주치의에게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성인은 학업을 마치고 동료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의사로서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로 활약한 성 판델레이몬에게는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선 치료자라는 칭호를 가진 성인 무리에 포함되어 추대되었습니다. 둘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 치료를 받아도 목숨이 위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인은 불가능한 게 없는 위대한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써 도움을 요청했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또 다른 별칭으로 '기적의 치료자 성인'이

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인이 행한 기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 기적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에 격노한 황제는 성인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심문은 시작되었고 성인은 참 하느님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용기있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황제는 성인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배교자로 만들기 위해 고문 집행자에게 넘겨 고문했습니다.

성인이 당한 끔찍한 고문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은 끔찍한 비인간적인 고문을 받으면서도, 침착한 모습으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또 하느님께서 범접할 수 없는 이적으로 순교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인은 그간 베푼 수많은 자선의 행적이 밝혀져 '자선을 베푸는 자'라는 의미의 판델레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순교자는 7월 27일 마침내 주님을 위해 참수를 당하고 하느님께 그 영혼을 바쳤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치유의 은사'를 받은 다른 성인들처럼 성 판델레이몬도 치유의 기적으로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자들은 가벼운 병이나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는 증병에 걸렸을 때, 성 판델레이몬 같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선하신 하느님께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실 때 성인들을 통해서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짜타 못가에서 중풍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을 기억해봅시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소경, 절름발이, 중풍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는 한 명의 환자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중풍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성공할 수가 없었던 병자였습니다.

다. 하느님께서서는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들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하듯이 먼저 의사에게 먼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서 38장 1절을 보면 "의사를 존경하여라, 너를 돌봐 주는 사람이요, 또한 주님께서 내신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주님께서 약초를 땅에 나게 하셨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집회서 38:4)

전염병이 들면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의사의 지침을 따라 자신을 보호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바이러스에서 자신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코로나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므로 의사나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신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사람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노출되고 감염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악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서를 인용하시어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 4:5-7)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과신하여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모한 생각과 행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코로나 희생자가 적을 수도 있었으나,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성 판델레이몬 대순교자를 존경합니다. 성인의 치유 은사에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특히 중병에 걸렸다면 더 성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병이 잘 낫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온 생명을 하나님인 그리스도께 맡깁시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올바르게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아멘